

#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고품유자·석류 널리 알릴 것”

전남도,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송재철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

화장품·음료 등 다양한 제품 개발 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일·미국 등 5억원 수출 실적

“고품유자와 석류라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고품의 특산물들을 널리 알려 지역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가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고품 특산물인 유자·석류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체험 및 실습 농장을 운영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송재철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송 대표는 ‘바른 먹거리 자연이 준 소중한 먹거

리’라는 구호로 2007년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농가 계약재배를 하고, 직접 생산한 친환경 유자·석류를 연간 300t 이상 활용해 음료류, 과자류, 화장품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비누 만들기, 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 2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특히 독일, 미국 등 해외로도 판매를 확대해 5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그 결과 송 대표는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우수사례경진대회 은상,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공헌상장(노인 취업 선도적 역할) 등을 수상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송 대표는 지역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



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융복합산업인”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동강대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승급식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하 동강대 부사관학군단)이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위상과 자긍심을 키우고 최정예 부사관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동강대 부사관학군단(단장 채희봉)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는 최근 산학협력관 4층 정동홀에서 8기 후보생 2학년 개강식 및 승급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급 후 후보생 21명은 지난해 7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RNTC에 합격해 학과별 수업뿐 아니라 부사관학군단 교내 교육, 육군부사관학교 하계 및 동계 6주 입영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 2학년으로 승급하게 됐고 정준호 후보생(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은 중대장 후보생으로

임명됐다. 특히 이번 승급자 가운데 군인 가족인 김현진·황우성 후보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분연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RNTC를 지원하게 됐다.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발전해 최고의 부사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봉 부사관학군단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학년 후보생 기간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는 후보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2학년 후보생이자 미래 육군 인재로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을 계속 펼쳐나가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편 동강대 RNTC는 오는 4월14일까지 9기 후보생을 모집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건축사회, 감사 선거 및 정기총회 성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안평환 시의원,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내외빈,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총회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려 공간의 가치를 더하며 공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걸어온 36년을 돌아보고, 본격적인 협회 의무가입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단결과 화합의 장이었다.

이날 임기 2년의 감사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김삼현(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박수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삼현은 광주건축사회 신협 감사도 겸하게 된다. 신임 이사 7명에 대한 선임도 이뤄졌다.

이와함께 이날 광주건축사 신협 제41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 연금관리위원회 제17차 정기총회도 함께 열렸다. 광주건축사 신협 부이사장에는 김선

영 건축사, 이사에는 정상재, 김준철 건축사가 각각 선출됐다.

정인재 광주건축사회회장은 “건축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면서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열기를 모아 의무가입시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회원 권익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서해현 광주서광병원 원장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광주서광병원은 서해현 원장이 제39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 원장은 2003년 광주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자원 의사로 시작해, 2015년에는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의료봉사 등 지역 의료를 위해 힘썼다. 캄보디아와 태국·미얀마 등지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펼쳤고, 최근에는 진료를 보는 틈틈이 광주 지역 요양병원 촉탁의로 활동하며 노인 의료에 앞장서고 있다. /연형뉴스

# 조선대 직원노조,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양고승)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466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오아시스(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꽃선비 열애사(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구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풍계공화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일꾼의 탄생(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구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드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행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김이아 육이아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20 스포츠 매거진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즈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정글 플래닛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45 뽕뽕뽕 뽕뽕	13:00 바닷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들레길
08:00 당동영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인간과 바다
08:20 출동! 슈퍼핑크	14:45 한국의 들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그린조개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로보가 폴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제주로 봄 보러 갈래 1부 마라도 해남의 바다>
09:05 슈퍼두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개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40 당동영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윤2월 6일 甲申) ☎ 010-9790-8237

<p>36년생 짜임을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48년생 일장 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60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 저무는 과격의 처지가 될 것임에 변하다. 72년생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겠다. 84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96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12, 87</p>	<p>42년생 기준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의외의 변수가 있다. 54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66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찰 것이다. 78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90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02년생 첫술에 배부르랴? 행운의 숫자 : 04, 70</p>
<p>37년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짐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49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61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이 나을 것이다. 73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85년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97년생 도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83</p>	<p>43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55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67년생 잘못 들 어섰다고 판단되면 원점으로 복귀하여 재출발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91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03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다. 행운의 숫자 : 17, 74</p>
<p>38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0년생 여유지게 마무리하고 나아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 해진다. 62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었다. 74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86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었다. 98년생 점점 세분화되겠다. 행운의 숫자 : 13, 92</p>	<p>44년생 부수적인 것 보다 주된 핵심을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56년생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68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확한 구 도이니라. 80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92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슬모가 없느니라. 04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62</p>
<p>39년생 지금 집회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 할 수도 있다. 51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 해지겠다. 63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팀배야만 결말이 날 것이다. 75년생 바뀌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하느니라. 87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99년생 기대 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95</p>	<p>45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57년생 아색하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 69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나 변수도 작용한다. 81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93년생 길 흥의 상극선이 길게 뻗어 있다. 05년생 지나 간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6, 98</p>
<p>40년생 예감을 무시하다가 큰코다친다. 52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4년생 판국을 좌우 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76년생 의혹을 살 수 있는 계제는 아예 만들지 말라. 88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00년생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44, 57</p>	<p>34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성국이니라. 46년생 일체 제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58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70년생 더불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82년생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94년생 확실한 변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1, 60</p>
<p>41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53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다. 65년생 단독으로는 힘들 것이니 함께 행하라. 77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자. 89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01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2, 81</p>	<p>35년생 함세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47년생 현태에 적응 하는 것이 선결 문제다. 59년생 힘드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71년생 여태까지 단 한번도 주어진 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인다. 83년생 불평한다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니라. 95년생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야 오 래갈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6, 99</p>